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3호 【루계 제24626호】 주체103(2014)년 8월 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전문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샤르 알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경모의 뜻이 담긴 따뜻한 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 종업원세대들에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고산과수농장 종업원세대들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지난 7월 23일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바치고있는 618건설돌격대원들과 농장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제대군인부부들의 새집들이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데 이어 농장의 2 000여세대의 모든 가정들에 문화용품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7월 31일 고산과수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박정남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희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수농장 종업원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김기남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철령아래에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선경, 사과바다를 펼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새 집들에 입사한 기쁨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넘쳐나는 속에 또다시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게 된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근로인민의 세상인 사회주의 우리 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위대한 화폭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훌륭히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농장력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사랑과 충정으로 빛나게 기록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고산과수농장 과장 남정호, 작업반장 리금녀, 로동자 김주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모든 작업공정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농장의 과수원들에 사과가 땅이 꺼지도록 달리게 하여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과일향기가 넘쳐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일나무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하며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며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문화주택들을 잘 관리하고 백옥같은 충정과 지극한 정성을 다바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높은 과일생산실적으로 보답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신발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수 있도록 공장을 가까운 기일안에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대공보》, 홍콩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환구망, 광명망, 중국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배구선수들이 수준이 높은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쟈까르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각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이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것과 관련하여 당신과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것은 귀 당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민의 높은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7월 30일 평양

전국당책임일군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

【삼지연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7월 31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조종의 산, 백두산정에 오른 행군대원들의 환희와 격정이 천지의 산발마다에 굽이쳤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인양 천변만화하는 백두산과 끝없이 펼쳐진 천리수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평원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로영일은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정에 오르니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이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곳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정에 오르니 위대한 수령님따라 항일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선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신양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강수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백두산정에 오르니 이 가슴이 벅차오른다.

얼마나 숭엄하고 장쾌한 모습인가.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조직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꿋꿋이 빛내여나가겠다.

신원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옥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 혁명의 성산을 언제나 심장속깊이 간직하고있다.

백두산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 숭고한 풍모를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영원히 높이 솟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함흥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명철은 백두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여 혁명의 큰뜻과 령장의 담력을 키우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기상과 넋이 어린 조종의 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조선혁명의 밝은 미래가 기약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산준령을 넘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주체혁명위업을 백두의 혈통으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

전국당책임일군들은 백두산답사에 이어 선오산밀영, 곰산밀영 등을 돌아보았다.

사령부자리와 대원실자리, 혁명사적물, 구호나무 등을 보면서 그들은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국내당조직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고 전반적인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이날 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은 장편서사시 《백두산》랑송모임과 혁명가요합창경연을 진행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빨찌산 김대장을 소리높이 격찬한 시구절을 들으며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답사행군대원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조선의 노래》, 《반일전가》, 《사향가》와 《적기가》, 《혁명군의 노래》, 《유격대행진곡》 등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답사행군기간 전국당책임일군들은 삼지연군 주민들속에 들어가 우리 당정책을 해설하는 다양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답사는 계속된다.

고산과수농장에 건설된 쇠그물울타리공장 조업식 진행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꽃펴나고있는 철령아래 대규모과일생산기지에 쇠그물울타리공장이 훌륭히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공장에서는 과수원뿐아니라 공원과 체육시설을 꾸리는 등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질좋은 쇠그물울타리들을 생산하게 된다.

조업식이 7월 31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618건설돌격대원들, 공장, 과수농장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최영건내각부총리의 조업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현대적인 쇠그물울타리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쇠그물울타리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여러개의 덩지큰 생산 및 보조건물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을 안고 건설자들은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건설속도를 높이는 한편 록화조성을 멋있게 하여 풍치를 돋구었다.

얼마전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쇠그물울타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618건설돌격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일을 잘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사업실적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일군들은 경영활동을 짜고들고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쇠그물울타리들을 대량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공장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기계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속에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수산물생산에서 최고실적 기록 평안북도수산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들에서

평안북도수산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수산물생산에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수산관리국적으로 지난 7월 중순에 벌써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은 83.9%, 수산물생산계획은 77.8%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관리국에서는 년초부터 올해 수산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일군들은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배수리전투를 다그쳐 수리기일을 앞당기며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동시에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도록 하였다.

관리국일군들은 배수리와 어구준비가 끝난데 맞게 첫 출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게 하였다.

지난 3월초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지휘선을 타고 몽금포중심어장으로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어로공들을 물고기잡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제일먼저 몽금포중심어장을 타고앉은 운전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힘찬 어로전을 벌려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련속 드센 어로전을 들이대여 지난 7월 19일까지 7 000여t의 물고기를 잡고 7 331t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주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도 몽금포중심어장을 타고앉아 드센 물고기잡이전투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서해북부수역의 어장에 배들을 총동원한 염주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7월 10일까지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룡암포수산사업소와 관해세소어업사업소, 신도세소어업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수산사업소와 세소어업사업소들에서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우리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일으키시여

온 나라에 백두산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다.

백두의 넋, 백두의 혁명열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된 영광의 땅 백두산지구에서는 지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봄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에게 백두의 넋을 심어주신데 이어 이번에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을 원쑤격멸의 총성드높던 백두산전구로 불러주신것은 천만군민이 혁명의 성산을 언제나 심장에 새겨안고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 바로 이것이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는 우리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며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의 근본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한세대에서 다음세대에로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나가자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지난해 11월 30일부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였다는 보도가 실리였다.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의 웅자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실 때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주체28(1939)년 5월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던 그날의 모습대로 군복차림으로 권총을 차시고 쌍안경을 드신채 근엄하신 안광으로 조국땅을 바라보시는 20대 청년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부주제조각군상들인 《조국》편, 《숙영》편, 《흠모》편, 《진군》편…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풍모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혁명전쟁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깊이있게 전해주는 기념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힘주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울창한 밀림의 바다도 파도쳐 설레이는듯싶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평양에서 수천리 떨어진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였는지, 어찌하여 백두산의 장군바위우에 서계시는 모습으로 형상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시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맹세를 굳히시였는지 다 알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첫째도 둘째도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시대가 전진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이다.

력사의 반동이고 인민의 원쑤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령도의 계승의 시기에 머리를 쳐들고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더욱 날뛰게 된다.

력사적교훈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지 않을 때 혁명이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게 되고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950년대 중엽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던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뭇고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신 사실을 지금도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보천보전투승리 17돐을 맞으며 몸소 연극 《보천보의 홰불》 대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역형상을 맡아 공연을 진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진행할 결심을 굳히시였다.

이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혁명전적지답사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행군길이라느니, 명승고적을 견학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요리조리 시비해나섰다.

하지만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은 드팀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주체45(1956)년 6월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솔하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혁명전적지답사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천명하시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업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당사업을 시작하시던 시기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렬차를 타고 온성으로 가시던 길에 회령에 들려주실것을 일군들이 간절히 아뢰였건만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의 고향집부터 찾겠는가고 하시며 곧바로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으로 가자고 하신 이야기는 그 시기에 엮어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건설과 관련하여 무려 2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려는 그이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1970년대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구호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공적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인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행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시려는 그이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선언하였다.

대한추위가 물러가지도 않은 궂은 날에 눈덮인 산길을 오르내리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은 백두의 행군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지난 2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월에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도록 명령하신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번에 진행되는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이것이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백두산바람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항일투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따라배우는 답사자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혁명을 끝까지 하려면 백두산으로

◇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시작되였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된 이후부터 온 나라에 백두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백두산으로 달려가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더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계속혁명의지를 천백배로 굳히게 된다.》,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가겠다.》… 이것이 답사자들이 한결같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안고있는 유서깊은 산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백두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맹세로 심장을 끓이는것이다.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 이것은 하나의 혁명대학과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근 60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 우리 혁명이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큰 산들을 넘으며 년대와 년대를 위대한 승리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바로 천만군민이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왔기때문이다.

수천수만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답사행군길을 따라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은 천만군민에게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심어주었고 혁명가의 참된 인생관, 애국심을 새겨주었으며 최후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혀주었다.

백두산지구에서의 혁명대학과정을 마친 견결한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주체의 항로를 따라 순간도 멈춤없이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전쟁도발책동도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쳐물리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이겨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 불굴의 혁명가들로 키우는 민족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자! 이것이 시대와 혁명의 부름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다.

백두산대국의 아들딸들이라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혁명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길로 이어나가야 한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며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날의 강습은 계속된다

박석골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우리가 찾은 경원군 중영리의 박석골혁명사적지는 무성한 수림속에 있었다.

경원군인민위원회 답사대렬과 함께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눈에 안겨든것은 골짜기어구에 세워진 표식이였다. 《박석골혁명사적지》라는 글발은 답사대렬이 더욱 활기에 넘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입니다.》

박석골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2(193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계시면서 국내당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강습을 진행하신 뜻깊은 곳이다.

그날의 사연을 안고 줄줄 흐르는 개울을 따라 얼마쯤 들어가느라니 한채의 초가집이 나졌다.

항일전의 그날 어둠이 깃들무렵에야 이 집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나먼 행군길의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국내혁명가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시고 혁명조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해마다 찾는 사적지이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군인민위원회의 한 녀성일군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혁명선렬들의 군복차림으로 뜻깊은 혁명사적지들을 찾으면 항일의 격전장들에 차넘쳤던 공기가 마음을 씻어주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가슴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답사자들의 말이 깊은 의미를 안고 들려왔다.

혁명사적지일군들과 답사자들의 지성이 그대로 엿보이는 정갈한 샘물터에서 무더위에 달아오른 몸을 식힌 후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밀영을 돌아보았다. 나라잃은 그 세월의 가난의 흔적이 숯구이막이였던 단칸방의 여기저기에서 느껴졌다.

세상을 피해 깊은 산중에 누군가가 지어놓았을 초막이 력사의 그날 빨찌산 김대장을 모시여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찾아오는 유서깊은 집으로 되였다는 생각에 쉬이 발걸음을 뗄수 없었다.

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본 우리는 드디여 강습장소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진행하신 그날의 강습은 조성된 난국을 뚫고 국내혁명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지였다.

수령님께서는 강습에서 국내혁명투쟁에 대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대중투쟁에 대한 당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망국의 비운을 가져주었던 태양의 빛발이런가 빼곡이 들어찬 나무숲을 헤치고 눈부시게 비쳐드는 해발이 강습장소를 환히 밝히고있었다.

귀기울이면 력사의 증견자로 서있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은 온 산발에 메아리치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간직한듯싶고 손더듬으로 어루쓸어보는 작은 풀잎도 수령님께서 안고오신 조국해방의 열풍, 백두산바람에 온갖 시름을 날려버리고 필승의 신심을 새겨안던 강습참가자들의 모습을 전하여주는듯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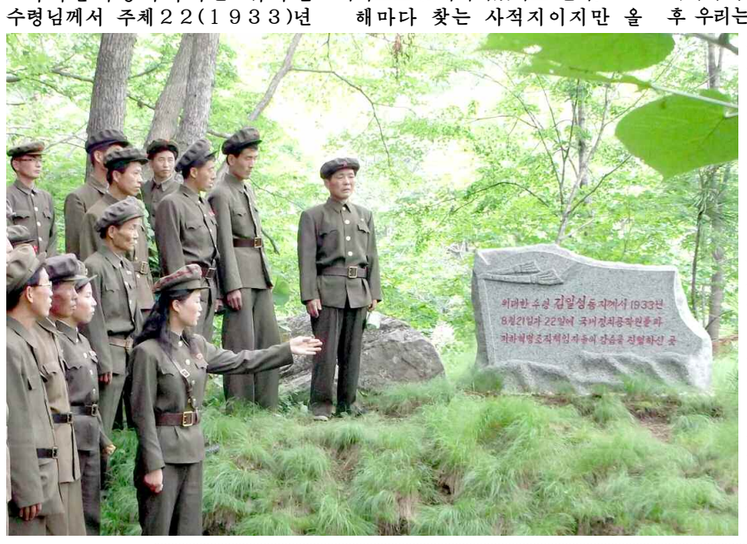
밀영주변에서 《어두운 조선의 밤하늘에 솟은 태양 김일성, 우리모두 그이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 독립일까지 한길을 걷자》를 비롯한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여 력사적인 박석골강습을 생동한 기록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고 해설하는 강사 채은하동무의 목소리도 격정에 젖어있었다.

답사대오는 활력에 넘쳐 또다시 답사길을 이어갔다.

한명한명의 답사대원들은 이곳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사상정신적인 피줄기를 더욱 굳건히 잇고 정신적자양분을 받아안던 그날의 투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그렇다. 박석골강습은 오늘도 진행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영민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 서거 82돐에 즈음하여 7월 31일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신 녀사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녀사의 동상과 묘앞에 놓여있었다.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 최부일동지와 김용진, 리무영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시내 여러 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화환진정들에 참가하였다.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근로단체, 성기관, 군사대학, 교육, 출판기관, 혁명학원, 평양시내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조선녀성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어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농장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일군들이 작업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농장을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변모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에 과일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올 결의드높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수 필‖

고향집의 쪽무이지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는 사람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앞에서 좀처럼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구름노전이며 키낮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나무권총, 나무칼, 나무쌍안경…

눈시울 뜨겁게 적셔주는 사적물들중에는 쪽무이조선지도도 있다.

《나무로 만든 이 지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조국을 빛내이실 꿈을 키우신 지도입니다.》

강사의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쪽무이지도를 가리키시며 이것은 함경북도이고 저것은 전라남도이라고, 이 모든것을 다 맞추면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아버님께서 조국해방의 작전도에 붉은 화살표를 그어가시던 그밤 어머님께서 밝혀주신 등잔불아래에서 13도를 맞추어 조선지도를 만드시던 어리신 장군님의 모습도 눈앞에 어리여온다.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랑하는 조국의 표상을 새겨준 쪽무이지도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어려있는것인가.

당시의 조선은 일제에게 빼앗긴 땅이였다. 침략자의 총칼에 뿌려진 2천만동포의 원한의 선혈은 대하를 이루었고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은 나라였다.

울울창창한 백두의 밀림속에서 탄생하시여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새기신 우리 장군님이시여서 그이의 애국심이 그리도 열렬한것 아니던가.

고향집의 키낮은 책상에서 쪽무이지도를 맞추실 때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벌써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빛나고있는 오늘의 조선이 움트고있었다.

해방직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더듬어진다. 어느날 이른새벽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동해의 바다가를 찾으시였다. 해돋이를 보시기 위해서였다.

잠시후 노을비낀 수평선이 끓어번지더니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름답고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 난 크면 조선을 태양의 나라로 만들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드님의 결심을 듣게 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래야 한다고 하시며 품에 꼭 껴안으시였다.

해돋이를 보시면서도 내 조국을 수령님의 높은 뜻이 활짝 꽃펴난 태양의 나라로 빛내이실 숭고한 의지를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

쪽무이지도에 어려온다. 전화의 그날 장자산에 나무를 심으시던 그이의 모습이며 룡남산마루에서 터치시던 애국의 맹세가, 창조와 변혁의 년대들과 시련의 나날들에 끊임없이 수놓아진 선군장정의 자욱자욱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기신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따라 쪽무이지도우에 실렸던 그이의 푸른 꿈이 룡성번영하는 조국의 오늘로 펼쳐졌다.

고향집의 쪽무이조선지도, 그것을 어찌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라고만 하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지를 만대에 전하는 국보이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씨를 대를 이어 천만의 심장에 지펴주는 혁명유산이기에 고향집의 쪽무이조선지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뜨거운것이리라.

본사기자

옳은 처방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묘술있게 해나가자

군중관점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송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머리속을 손금보듯이 알고 매 사람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 사업해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해도 매 사람의 머리속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보아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송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눈빛을 보고도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도 그들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6월에 있은 일이였다. 초급당비서 리영성동무는 교대지령장으로 일하는 남신근동무의 눈에 수심이 낀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속한 단위 당초급일군에게 까닭을 물으니 본시 과묵한 성격이여서 그러겠지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고 하였다.

일리있는 말같기도 하였지만 초급당일군은 범상한 일로 스치지 않았다. 필경 무슨 일이 있을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날 우정 남동무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난 초급당일군은 늘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의 눈빛을 외면하였더라면 어쩔번 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남동무는 그무렵 전쟁로병인 어머니의 병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은 만사를 제쳐놓고 남동무의 집에 가정방문을 갔다. 그후 그의 어머니는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필요한 약재를 구하려고 승용차가 밤중에 수십리길을 여러번 다녀왔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건강이 회복된 전쟁로병어머니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탄광을 떠날 때에는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해주었다. 남동무가 양기를 잃지 않고 맡은 일을 극성스럽게 해나가게 하는데 이것이 큰 작용을 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대군인들인 장충일, 장사일, 장지일동무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고충을 알아차리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뜰히 보살펴줌으로써 탄광을 자기 집처럼 여기게 한 사실, 부모없는 여러명의 탄부들의 결혼상을 차려주고 텔레비죤수상기, 록화기, 가구를 비롯한 문화용품들과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살림집을 마련해준 사실…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이곳 일군들의 안목은 군중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려는 투철한 각오와 헌신적복무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심을 바치자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이란 없다. 누구나 정을 주고 진심을 쏟아부으면 혁신자가 될수 있다. 이것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군중관점이다.

운반갱에서 일하는 박동무를 손잡아 이끌어준 이야기가 있다.

그의 부모들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박동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컸지만 그는 맡은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만은 어쩌는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맥을 놓고 나앉지 않았다.

(진심은 마음의 대문을 여는 통행증이다.)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일군들은 그와 한교대에서 일하면서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기 위한 길에 수놓아간 그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절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그의 동생들까지 집에 데려다가 성의껏 음식상도 차려주면서 사랑과 정을 쏟아부었다. 동생들이 다니는 초급중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던 날에는 학부형된 심정으로 해줄수 있는것을 다해주었다. 그러니 박동무가 왜 감동되지 않았겠는가. 그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늘은 혁신자로까지 자라났다. 진심, 그것은 그가 누구이든 당일군에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명약이였다.

한가마밥

당일군들이 군중을 위하여 헌신하자면 딴가마를 몰라야 한다. 군중과 한가마밥을 먹어야 그들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옳은 처방을 내릴수 있다.

지난 5월 어느날 천성구 252인민반에서 상수도공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자신들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에 앞장섰다.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일하면서 현장에서 한밤을 꼬박 새웠다. 공사의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곡괭이를 휘둘러대는가 하면 유모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고 새벽녘에는 물이 상수도관으로 통과하는것을 보고서야 그곳을 떠났다. 초급당일군들의 이런 모습은 모두에게 참으로 인상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더 큰 소득을 본것은 초급당일군들이였다.

군중과 어울려 한가마밥을 먹으며 공사를 벌리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 깊이 파악하게 된 초급당일군들은 그후 매 사람의 특성에 맞는 처방들을 내리면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갔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대중운동에로 힘있게 이끌어 탄광을 2중3대혁명붉은기탄광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본보기단위로 만들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군중관점부터 옳바로 가져야 자기 단위 종업원들에 대한 처방을 면바로 내리고 그들과의 사업을 묘리있게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다시 찾아준 청춘의 활력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특성에 맞는 옳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어느날 초급당비서 박경일동무는 한 초급일군의 이런 말을 듣게 되였다.

《실적이 높던 동무인데… 아무래도 나이는 어쩌는수가 없는가 봅니다.》

오래동안 연구소에서 일해온 한 녀성과학자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초급당비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녀성과학자의 모습이 눈에 선히 어려왔다.

사실 연구소의 연혁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하여 공로도 세운 동무였다.

(벌써 락엽이 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알고있는 그 녀성과학자는 평시에 혈기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해온 사람이 아니였다. 그를 특징짓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드높은 열정이였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하나하나의 과학연구성과를 내놓을 때마다 저런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계속 샘솟아나는지 모르겠다고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눈길을 모으군 했던 녀성이였다. 또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좀 많아도 지식경제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계속 높은 실적을 낼수 있는 그였다.

필경 다른 원인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다음날 시간을 내여 그를 만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와 진지하게 담화를 하였다.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그즈음 연구사업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부진상태에 있은것은 나이가 많아서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모르는 생활적고충때문이였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는 그에게는 광일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온것이였다.

한편으로는 연구사업을 하고 다른편으로는 영예군인인 아들을 돌보느라 그가 얼마나 고생하였겠는가.

초급당일군은 녀성과학자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미리 속속들이 헤아리고 풀어주지 못한 자신에게서 결함을 찾았다.

그때부터 초급당일군은 영예군인의 건강과 생활을 남달리 깊이 관심하며 살뜰한 정을 기울이였다. 귀한 약재도 구해주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떠밀어주었다.

대학생이 된 영예군인아들을 위해 가방과 학용품까지 준비하였다가 안겨주는 초급당일군의 손을 잡고 녀성과학자는 끝내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녀성과학자는 새롭게 분발하였다. 나이가 들어 더 큰 과학연구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여기던 그가 이전보다 탐구의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돌진해나갔다.

그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다시 찾아준 청춘의 활력,

그것은 초급당일군이 녀성과학자에 대한 처방을 옳게 내리고 그와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 응당한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채인철

두 초급일군의 약속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에 가면 농사에서는 물론 마을꾸리기를 비롯하여 그 어느 면에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자랑할만 한 단위가 있다. 농산제2작업반이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이 단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문당위원회에서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알심있게 잘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하나의 실례가 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농산제2작업반 마을의 한 집에서만은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1분조장 김룡걸동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젠 내가 낡았나?…)

모내기실적총화때 있었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작업반장이 분조별모내기실적을 발표하였는데 3분조가 뜻밖에도 1등의 순위를 차지한것이였다. 분조장이 된지 얼마 안되는 맹춘국동무가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었다.

김룡걸동무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승벽심이 누구보다 강했다. 20년간 분조장으로 일해오면서 언제나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그였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그는 새 결심을 안고 아침일찍 포전으로 나갔다.

1분조포전에 3분조장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와서 으시댈셈인가?)

김룡걸동무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3분조장이 반색을 하며 따라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바로 전날 저녁총화가 끝난 후였다고 한다.

분조장들이 흩어질무렵 부문당비서가 3분조장을 따로 불렀다.

부문당비서 박순길동무는 그에게 진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오늘 1등으로 평가되였지만 자만할 근거는 없소. 젊은 분조장으로서의 동무의 패기는 오랜 분조장들의 훌륭한 경험과 결합되여야 하오.》

그러면서 부문당비서는 1분조장이 농사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를 찾아가 배우라고 하면서 3분조장을 떠밀어보냈다는것이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믿는단 말인가. …)

그날 1분조장은 3분조장에게 오랜 기간 분조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3분조장은 부문당비서가 여러분조장들중에서 1분조장에게 자기를 보낸 까닭을 알게 되였다.

《역시 룡걸동진! …앞으로 계속 오겠습니다.》

3분조장은 만족하여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이때 1분조장이 3분조장의 손을 붙잡았다.

《이보라구 3분조장, 그냥 갈셈인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3분조가 불시에 용을 썼거던. 비결을 말해주게.》

3분조장은 어색해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래도 1분조장은 막무가내였다.

마침내 터놓는 3분조장의 말을 통하여 1분조장은 사업에서 새롭게 참고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쥐게 되였다.

헤여지기에 앞서 두 초급일군은 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이것은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올해농사를 더 잘 짓자는 약속이기도 하였다.

그후 두 분조가 쌍둥이처럼 혁신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며 영농전투에서 실적을 올리였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승벽심이 센 두 분조장이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한 이곳 부문당일군의 사업방법은 얼마나 로숙한가.

* *

두 분조장의 약속은 그후에도 계속 실천으로 이어졌다.

결국 두 분조는 알곡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구역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였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도 두 분조장은 나란히 함께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서로 돕고 이끌며 언제나 앞장서나가려는 두 분조장의 경쟁심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애착속에 태여난 새 모습

강서인쇄분공장 당세포에서

사람들속에서 리동무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그가 분공장에 배치된지 몇달이 되도록 안착되여 일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은근히 다른데로 갈 궁리를 하고있었다.

그 일로 하여 마음을 쓰던 당세포비서 최복순동무는 어느날 그를 조용히 만났다.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리동무가 한 말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다들 날 나쁘다고 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지 말자는겁니다. 뭔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보자는것이지요.》

알고보니 그에게는 좋은 측면도 있었다. 청춘시절에 무엇인가 큰일을 해보려는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일터를 가리는 그릇된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주어야 할 점이였다.

그래서 당세포비서는 오금을 박았다.

포부는 좋다. 그러나 한곳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큰일을 치는것을 못 보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게 된다. …

그 말에 리동무는 무엇이라 대답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후 리동무는 생활에서 일정한 개진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온넋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되자면 아직 멀었었다.

어느날 당세포비서는 현장에서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고 무릎을 쳤다.

여러 종업원들이 기계의 고장원인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있을 때 우연히 그곁을 지나가던 리동무가 별로 힘들이는 기색도 없이 잠간사이에 고쳐놓았던것이다.

기계속내에 밝은 그의 장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능히 일에 재미를 붙이게 할수 있었다.

며칠후 인쇄판걸이장치기술개조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당세포비서는 지배인 리광남동무와의 충분한 토론밑에 그 기술과제를 리동무에게 맡기였다.

사람들속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분공장에 인재가 없어서 허파에 바람든 사람에게 맡기는가, 그런다고 그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의견들이였다.

리동무가 인쇄판걸이장치기술개조를 해냈을 때에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는 미덥지 않았다.

그러나 당세포에서는 리동무가 실적을 낸것만큼 내세워주었다.

그렇게 되니 리동무는 더 분발하였다. 어려운 기술혁신과제인 평판인쇄기기술개조를 스스로 찾아와 맡아안게 되였다.

평판인쇄기기술개조의 나날만 놓고보더라도 리동무는 분공장의 공무기지가 미약한 조건에서 수십번이나 련관단위들에 걸음을 하면서 치차를 비롯한 4종에 10여점의 부속품들을 가공하여왔다. 그리하여 3달동안에 그 기술개조를 훌륭히 끝냈다.

오늘은 종업원들 누구나가 그를 분공장의 참된 주인, 창의고안명수, 보배로 둥둥 떠받들고 있다.

부끄러운 어제와 자랑스러운 오늘을 두고 리동무는 말하였다.

《애착속에 저는 새로 태여났습니다. 정든 나의 일터를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최영길

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동림광산

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뒤그루감자, 메밀재배에서 나서는 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하여야 합니다.》

뒤그루감자(가을감자)와 메밀을 적기에 질적으로 심는것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감자를 뒤그루로 재배하면 정보당 알곡소출을 최대로 높일수 있고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종자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더우기 올해의 례년에 없는 가물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포전들에 감자를 심으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 이바지할수 있다.

뒤그루감자농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품종을 잘 선택하는것이다.

뒤그루감자는 자라는 기간과 알이 드는 시기가 짧으므로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면서도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선택하는것이 좋다. 또한 역병에 견디는 힘이 센 품종을 골라심어야 한다.

종자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뒤그루감자종자처리방법에는 설익은 도마도처리, 카바이드처리 등이 있다. 최근 과학연구기관들과 평안남도를 비롯한 일부 단위들에서 시험한 자료에 의하면 벤질아데닌(6BA)처리와 설익은 도마도처리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흙을 깨끗이 털어낸 감자종자를 박막우에 한벌 펴놓은 다음 벤질아데닌 2 000배 용액으로 1~2차 분무하면서 약물이 묻지 않은 알들이 없도록 잘 뒤적여준다. 벤질아데닌용액은 만든 그날로 다 써야 한다.

과일, 도마도를 비롯한 열매는 익을 때 많은 에틸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싹틔우기를 촉진시킨다. 감자종자를 모판우에 한벌 펴놓고 젖은 모래나 탄재로 종자가 2/3정도 묻히게 뿌려준다. 그리고 설익은 도마도를 여러 쪼각(6~8쪼각)으로 나누어 종자우에 골고루 놓는다. 이때 모판당 필요한 설익은 도마도는 3~4㎏이면 충분하다. 그다음 박막으로 10~15일간 밀페시켜야 한다. 이렇게 잠을 깨워 싹틔운 종자는 모를 길러 옮겨심는것이 좋다.

모판은 탈곡장주변이나 그늘진 곳, 심으려는 논과 밭주변에 정할수 있다. 현장에 정하는 경우에는 수분증발을 막고 비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도록 그늘을 지어주는 등 대책을 세우면서 물이 고이지 않는 곳에 정해야 한다. 모가 4~5㎝정도 자라면 끝순을 쳐주어 결가지가 자라게 해야 한다. 모를 25일정도 길러 키가 18~20㎝되면 포전들에 옮겨심어야 한다.

뒤그루감자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뒤그루감자를 식용으로 리용할 경우에는 7월 하순~8월초, 종자로 쓸 경우에는 8월 중, 하순에 심는것이 좋다.

뒤그루감자는 장마철에 심어 재배하므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 이랑을 높이 짓고 심어야 한다. 자라는 초기에 높은 온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봄에 심는 감자보다 약간 깊이 심고 사이그루작물을 심어 토양온도를 낮추어주는것이 좋다.

가을감자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논에서는 1.5m의 두둑을 짓고 밭에서는 60㎝로 이랑을 지어 평당 35포기씩 심어야 한다. 강냉이사이그루로 심을 때에는 감자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강냉이사이거리가 90㎝이상 되는 포전에 심어야 한다. 다음해농사에 리용할 종자생산용으로 심을 때에는 평당 포기수를 50포기로 하는것이 좋다.

뒤그루로 재배하는 가을감자는 큰28점벌레의 피해를 심하게 받을수 있으므로 피해막이대책을 바로세워야 한다. 9월 중, 하순에 5일정도 계속 흐리면서 비가 내리는 경우 역병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피해가 크므로 대책을 미리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0.6%석회보르도액과 같은 농약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제때에 뿌려야 한다.

뒤그루메밀농사를 잘하여야 한다.

메밀씨앗은 4~5일간 해빛말리우기를 한 다음 물고르기를 하여 가라앉은것만 골라심어야 한다. 이때 0.05%후민산용액이나 0.05%붕산용액에 24시간정도 담그었다가 심으면 잎줄기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뿐아니라 알이 잘 여물어 정보당 소출이 훨씬 높아진다.

메밀씨뿌리기는 70㎝이랑에 30~35㎝의 넓은 줄씨뿌리기, 70㎝이랑에 20㎝간격으로 두줄씨뿌리기, 두둑식씨뿌리기, 전면흩어씨뿌리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정에 맞게 할수 있다.

농업성 부국장 리경록

행정일군의 왕성한 사업의욕과 밑거름

단천시 장내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아니 관리위원장동지가 직접 북채를 잡고 기계화작업반 예술소품공연에 출연하겠단 말입니까?》

《비서동무, 자신있습니다. 내가 담당한 작업반인데 3대혁명붉은기관정준비에서도 이 관리위원장이 솔선 모범을 보여야지요.》

《멋진 생각입니다. 내가 지원포를 쏴줄테니 한번 잘해보십시오.》

60나이의 관리위원장이 직접 북채를 잡고 출연한 예술소품공연은 판정성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해에 기계화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단천시 장내협동농장에서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있은 일이다.

관리위원장이 무슨 일에서나 주인이 되여 앞장에서 해제끼니 모든 일이 잘되여나갔다. 얼마전에는 농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경제사업을 위한 당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 그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해전 관리위원장 김인형동무가 선진영농기술인 소식균형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일 결심을 하고 내밀 때였다.

경험주의에 빠진 어느 한 작업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자기 작업반은 전부 모래논인데 소식재배를 했다가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이 사실이 리당비서에게 알려졌다. 관리위원장의 결심이 혁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물지 않는 초급일군의 사업태도를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작업반장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고쳐주자면 우선 자신들부터 선진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리당비서는 여러차례 리당일군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조직하였다. 그후 논벼소식균형재배의 우월성을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리당일군들의 꾸준한 해설에 작업반장의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리당위원회는 기사장과 토론하여 그 작업반에 여러개의 시험포전을 만들어놓고 소식균형재배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해에 소식균형재배방법을 받아들인 시험포전에서 아지치기가 례년에 없이 잘되고 최고수확을 냈다. 그것을 목격한 작업반장이 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작전하고 전개하는 문제들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였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장동수동무가 리당비서로 임명되여온지 한해가 되던 때의 일을 돌이켜보자.

어느날 관리위원장이 농장 10일유치원을 아무래도 다시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3층으로 짓되 실내에는 물놀이장과 지능놀이장, 유희실도 갖추고 외부에는 특색있는 군사놀이터를 꾸려 시적인 본보기가 되게 하자면서 설계안까지 내놓았다. 사실 수십년전에 건설한 유치원건물이 낡아 리당비서도 그런 생각을 하던중이였다.

《이왕이면 시가 아니라 도적인 본보기가 되게 본때있게 건설합시다.》

쉴새없이 새 일감을 찾아쥐고 뛰고 또 뛰는 관리위원장을 리당일군들은 적극 도와나섰다. 유치원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하였다. 행정일군들과 함께 건설장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우면서 자재, 로력보장, 후방사업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 풀어나갔다.

행정일군들이 활력에 넘쳐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는 가운데 유치원건설은 짧은 기간에 끝났으며 시와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정말 특색있게, 훌륭하게 꾸렸다는 찬사를 들으며 당, 행정일군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같았다.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장대로 당일군들에 대한 고마움과 창조의 보람을 한껏 느꼈으며 리당일군들은 과감한 실천력을 지닌 행정일군과 함께 일하는 긍지를 느꼈다. 이러한 감정은 당, 행정배합을 더 밀접하게 해주었고 보다 큰 혁신을 기약하였다.

정치사업의 능수로

네일내일이 따로 없는 농장, 행정일군들도 정치사업의 능수, 이것이 장내협동농장과 그곳 일군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올해초 리당위원회에서 연혁소개실을 특색있게 꾸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내밀 때였다.

리당일군들은 그와 관련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열고 여기에 행정일군들을 참가시켰다. 교양거점을 꾸리는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관리위원장은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발한 착상과 의견을 내놓았다. 네모서리를 원형처리하고 형판도 쪽 련결하면 특색있지 않겠는가. …

다른 일군들도 여러가지 좋은 안들을 내놓았다. 그 착상과 의견을 놓고 하나하나 집체토의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리당위원회에서는 그 제안들을 다 실현시켰다.

그때 만일 리당비서가 교양거점을 꾸리는것은 전적으로 리당일군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일군들을 적극 참가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연혁소개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질수 없었을것이고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관철에서는 성과가 이룩될수 없었을것이다.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리는 과정은 사상교양사업을 대하는 행정일군들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고 그들을 정치사업의 능수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리당위원회는 올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판정준비과정을 행정일군들의 정치사업수준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갔던 리당일군은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 작업반을 담당한 일군이 제기되는 문제를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행정실무에 빠져있는것이였다. 즉 부족되는 자재나 구해다주는 식으로 일하는것이였다. 그러다가는 대중의 창발성이 마비되고 우에만 매달리려는 옳지 못한 싹이 자랄수 있었다.

이전같으면 실적을 냈다고 그 일군을 칭찬해줄수 있었겠지만 리당위원회는 그러한 일본새에 경종을 울리였다. 일군들모두가 담당한 작업반의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창조정신을 키워주는 정치적방법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 본보기를 다름아닌 관리위원장이 창조하도록 하였다.

판정준비가 제일 미진된 작업반에 나간 관리위원장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모아놓고 지명유래를 통한 참신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도 땅이 나빠서 말이나 가두어기르던 우리 고장이 지금은 얼마나 전변되였습니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지요.》

대중이 발동되니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었다.

리당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모범을 모든 행정일군들, 초급일군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판정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리당위원회가 행정일군들에게 정치사업의 능수로서의 새 모습을 찾아준 결과였다.

행정일군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배짱, 청춘의 패기를 가지고 용을 쓸 때 모든 일이 잘된다. 그렇게 되자면 당일군들이 행정일군들의 사업권위를 세워주며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단천시 장내리당위원회의 사업이 시사해주는 경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인민군대의 비상한 건설속도에 탐구의 열풍으로 화답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로 들끓는 국가과학원에서

지금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는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위성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뜻깊은 지난 6월 19일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대로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여 우리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자고 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과학기술중시의 세계가 펼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의 불야경과 더불어 은정과학지구에는 전례없는 사색과 탐구의 열풍, 집단적경쟁열풍이 일고있다.

온 과학지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1월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불같은 충정과 애국의 열정으로 거세차게 끓어번지는 하나의 거대한 불도가니가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명희

결사의 실천—단 석달만에!

111호제작소의 경험을 놓고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올해에 목표로 내세운 여러 대상의 연구도입과제들을 단 석달만에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하여 힘차게 내달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111호제작소에서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올해전투목표부터 다시 세웠다. 모든 연구도입과제들을 본래의 기일보다 6개월 앞당겨 태양절까지 결속하는것이였다.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목표였다.

그러나 결코 제작소의 몇몇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주관적욕망에 의한 결심이 아니였다.

가능성이 있었다. 가장 큰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전례없이 앙양된 과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였다.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동원리용하는가, 길은 여기에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기며 이곳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힘을 집중하여 하나씩하나씩 모가 나게 해결해나가는것이였다. 현지에서 제작소의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시면서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던 문제점을 대번에 꿰뚫어보시고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서 비약의 열쇠를 찾았던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작소일군들이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대상과제수행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는 문제였다.

당조직의 지도가 심화되는 속에 제작소에서는 여러건의 대상과제들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관심하시는 대상,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대상들에 먼저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필요한 력량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의 째인 조직사업에 따라 실장 전호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성능높은 공기정화소독기 10여대를 짧은 기간에 제작완성할수 있었으며 지난 2월 10일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 보내주었다.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는 높은 평가의 말씀과 함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서 이룩된 귀중한 첫 성과였다.

뒤이어 청춘거리 체육촌의 여러 경기관들에서 체육경기심판기도입사업을 벌려온 실장 박용진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국제경기규칙에 맞게 개발한 수영과 력기, 레스링, 유술, 롱구경기심판기들의 정상운영준비를 2월말까지 전부 끝내였다.

제작소에서는 연구실들사이 그리고 다른 연구소와의 협동도 중시하였다. 실례로 어떤 전자장치를 새로 연구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구실들마다 제각기 장치를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던 틀에서 벗어나 연구실들에서는 설계만 하고 제작은 자체의 힘으로 꾸린 현대적인 첨단제품제작기지에서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자재는 전적으로 제작소가 보장하였다. 이렇게 되니 장치제작에서 속도와 함께 질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어 좋았다.

지난 4월에 여러 단위들에 도입한 수지로 만든 수자식노기스와 실장 박사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여러 파수농장들에 도입한 휴대용엽록소측정계기를 동력기계연구소의 기술자들과 협동하여 짧은 기간에 연구제작한것도 하나의 좋은 실례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대로 과학연구사업에서 도입을 철저히 중시하는 과정에 포전기상관측설비를 새로 연구제작하고 가스농도원격측정장치의 도입범위를 넓힐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것도 제작소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연구도입과제수행에서 질보장에 대한 일군들의 요구성이 매우 높은것이다. 세계를 디디고 오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단순히 과학연구사업의 기간만을 단축할것이 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비약해야 한다는것이 제작소일군들의 의지였다.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연구도입사업을 진행한 결과 박사 부교수 김교윤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제품종합검측설비를 선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우리식으로 훌륭히 만들어 도입할수 있었으며 다른 연구집단들에서도 연구도입대상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석달동안에 이들은 이렇게 비약하였다. 탐구의 먼길에서 이 기간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약과 혁신의 이 석달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세계를 향해 돌진하려는것이 이들의 만만한 과학적야심이다.

하다면 이들이 어제는 우리 장군님의 추억속에 젊고 실력있는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집단, 일을 많이 하는 연구집단으로 소중히 자리잡았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연구집단으로 그 영예를 계속 떨쳐가고있는 근본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인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류성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제작소를 최첨단연구기지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안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하나를 연구해도, 한가지를 도입해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여 힘껏 노력하고있을뿐입니다.》

가치있는 연구결과를 안고 현장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티오균비료와 은정복합균

미생물학연구소의 티오균비료와 은정복합균은 이미 농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연구사 김천삼동무를 비롯한 농업미생물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개발도입하고있는 티오균비료는 알곡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흔한 공업용광석폐기물을 기질로 하여 만드는 미생물비료로서 린비료를 대용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과학자들은 티오균비료의 도입면적을 늘이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려 연 수십만정보분에 해당한 종균을 생산도입하였다.

연구사 서명동무를 비롯한 축산미생물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은정복합균에 의한 집짐승발효먹이생산기술도 알곡먹이의 리용률을 줄이고 겨울철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우월성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축산부문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이곳 과학자들은 현지에 나가 현장일군들, 돌격대원들과 창조적힘과 지혜를 합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집짐승의 폐사률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줄이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두달동안에 50여대의 레이자종자처리장치를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레이자종자처리장치도 도입단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이 개발도입하고있는 레이자종자처리장치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매우 크면서도 소비전력이 작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 누구나 쉽게 리용할수 있다.

여러 단위들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이 레이자종자처리장치를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평균 10%이상 높이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실장들인 리훈, 박재일동무들과 김금철, 김명근동무들을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키는 심정으로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달동안에 50여대의 레이자종자처리장치를 만들어 씨뿌리기전으로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소문없이 이룩한 전례없는 성과였다.

만선의 밑거름이 되고있는 어선용위성수신체계

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 연구제작한 어선용위성수신기가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리기 위해 떨쳐나선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위성수신기는 어선들에서 위성화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직접 받아 해석처리하여 어장상태를 신속정확히 통보할수 있는 어선용위성수신체계에 기초하고있는 첨단기술설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위성정보처리연구집단의 당세포에서는 어선용위성수신체계와 위성수신기에 대한 연구도입목표를 내세웠다.

연구사들인 강철진, 정금철동무들은 실장 최남훈, 당세포비서 채광동무를 비롯하여 온 집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조속에 지난해에 문덕수산사업소에 대한 첫 도입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면서 위성수신기에 대한 연구제작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여러 수산사업소들에 도입하였다.

지금 과학자들은 현지에서 위성수신기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방조를 주면서 그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동해와 서해의 만선의 승전포성에는 우리 과학자들의 사색과 탐구의 열정도 이처럼 소중히 깃들어있다.

백수십개 대상의 지하수를 탐사

지질학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주목되는 성과는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대상들에 대한 지하수탐사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곳곳에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건설부문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면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보장하기 위한 물자원탐사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실장 박사 부교수 오광석동무를 비롯한 과학실험기구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최근년간 지하수탐사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조건에 맞게 CT탐사기구의 성능을 개선하고 현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심하면서 탐사정확도를 높여나가고있다.

고성룡, 리성국동무들을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60여개 대상 그리고 2013년에는 옥류아동병원, 만경대혁명학원 종합체육관, 은하과학자거리 등 85개 대상들에 대한 지하수탐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올해에 탐사한 대상들까지 합하면 이곳 연구집단이 최근 2년반동안에 지하수탐사를 보장한 대상은 모두 160여개에 달한다.

지금도 여러 단위들에서 계속 이들을 찾고있다.

지질학연구소의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실장 박사 부교수 한창복동무와 연구사들인 김수남, 김주혁동무들을 비롯한 광상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어느 한 지구에서 경제적실리가 큰 귀금속광상을 찾아내였다. 그리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실력이 높고 믿음이 가는 과학자들이라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실장 김경철동무를 비롯한 석탄지질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무연탄밭의 지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지난 1년동안 전국각지의 많은 탐사대, 탄광들에 도입함으로써 석탄탐사의 과학성을 높이고 탄광들의 경영관리와 생산지휘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에서 해나갈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질학연구소에서 최근년간에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무게있는 연구성과들을 적지 않게 내놓고있는데는 소장 박사 부교수 박현욱동무와 오인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힘있고 째인 조직정치사업이 믿음직하게 안받침되여있다.

로과학자의 기쁨

전기연구소 손홍령동무가 들려준 이야기

지난 2월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대형산소분리기운영에 지장을 주고있던 고압대출력주파수변환기의 상사식조종장치를 현대적인 수자식조종장치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제를 책임졌던 손홍령동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여운이 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전력전자공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사업을 시작한것은 2010년부터였다.

대형산소분리기를 돌리자면 여기에 압축공기를 보장하는 원심압축기를 가동시키는 출력이 큰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것이 급선무였다. 회전자의 직경이 거의 5m나 되고 길이만 해도 7m나 되는 덩지 큰 이 전동기를 기동시키는데 쓰이는 설비가 바로 고압대출력주파수변환기였다.

과학자들과 현장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그 전해에 오래동안 서있던 설비가 두달만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종전의 상사식조종장치로써는 주파수변환기의 기동은 물론 나아가서 전동기의 기동을 안전하게 담보할수 없었다.

손홍령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연구소당조직과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이 조종장치를 수자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내세웠다.

정영철, 조정민동무들과 당시 이곳 연구사였던 안일청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연구집단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수자식조종장치가 제작되였다.

현장도입사업은 마음먹은대로 진척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물러설수가 없었다.

소장 김광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적극적인 고무속에 손홍령동무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이 설비와 더불어 젊은 시절에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수십년세월 가슴에 안고사는 로과학자의 지칠줄 모르는 모습은 박경수, 유혁철동무들을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에게 큰 힘이 되였다.

마침내 성공의 날이 왔다.

그 다음날 새벽에 손홍령동무는 병원으로 실려와 큰 수술을 받았다. 애오라지 성공에로 향한 그의 불굴의 정신이 육체의 아픔을 오랜 기간 누르고있었음을 그 자신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

《이번에 우리 연구집단이 거둔 성과가 고압대출력주파수변환기를 개발한것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과학자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당조직과 동지들의 관심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연구사업을 계속할수 있게 된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던 이번 연구도입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탐구의 먼길을 갈 젊고 쟁쟁한 새 세대 과학자들이 우리곁에 많다는 그것입니다.》

손홍령동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다.

첫걸음부터 기세좋다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지금 은정과학지구에는 자연에네르기연구소가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훌륭하게 일떠서고있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지열과 풍력, 생물질에네르기,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네르기의 개발리용과 관련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로 새로 조직되였다.

이곳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첫걸음부터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지열랭난방체계를 확립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6월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에서는 즉시에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열랭난방체계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은 지열자원탐사와 랭난방체계구축, 지열설비개발 등 여러 연구단위의 종합적인 공동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당시 이 과제를 맡은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소들에 갈라져있었다.

국가과학원 책임일군들의 째인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과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합심하면서 지열랭난방체계확립을 위한 건설공사를 끝내였다.

그후 여러차례의 시운전을 거쳐 지난 2월까지 졸짱 수중뽐프식으로 된 지열랭난방체계를 성과적으로 확립하였다.

이 나날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였다.

지금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은 지열의 개발리용을 위한 연구성과로써 첫걸음을 떼였지만 래일에는 풍력과 생물질에네르기, 태양열 등 모든 자연에네르기의 개발리용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있다.

은정과학지구가 자랑하는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들

지질학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박현욱동무

111호제작소 실장 박용진동무

미생물학연구소 연구사 김천삼동무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 강철진동무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 수영경기 진행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 수영경기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창광원 수영관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서 선발된 수백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수영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수영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4개 조로 나뉘여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된 경기는 시간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였다.

수산성, 인민봉사총국, 천명알론봉사쎈터, 외국문출판사가 조에서 각각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에 표창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수영경기를 통하여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총련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들 도착

리영생강좌장과 김용대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7월 3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이를 정치화하여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국회에서 《대조선제재강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제약없는 상봉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리산가족상봉법수정안》이라는것을 박아넣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범죄적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한편 《재미리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니 뭐니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이에 편승하여 미국회 의원들에게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청탁하는 놀음을 벌린다, 유엔주재 우리 대표부에 편지를 보낸다 하고 분주탕을 피우며 마치도 우리에 의해 상봉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듯이 모략여론을 내돌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순수한 인도주의문제마저 정치화하여 그 무슨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압박해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민족이 근 70년에 이르도록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살면서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분렬의 원흉인 미국때문이다.

사실 미제의 비법적인 남조선강점과 6.25조선전쟁도발, 원자탄공갈이 없었다면 애당초 우리 민족은 갈라지지도 않았을것이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라는것이 제기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기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고 래왕과 협력사업이 활기를 띠며 진행될 때마다 남조선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아 북남관계를 악화시켜온것도 미국이고 순수한 인도주의정신에 배치되게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2중3중으로 악랄하게 제재, 봉쇄하여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길을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조일정부간 회담결과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재일본조선인들의 조국래왕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사업들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마치도 인도주의적문제가 우리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처럼 헐뜯고있는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 민족내부에 불신을 조성해보려는데 그 교활한 목적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비록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지만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에 기초하여 재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생사여부확인과 상봉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가족상봉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을 감시하고 문초하며 몸수색까지 하다 못해 가족, 친척들에게 보내는 얼마 안되는 송금마저 차단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인도주의말살과 인권유린의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괴뢰령사관것들도 재미동포들의 조국방문길을 가로막아나서면서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정치화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용하고있는것은 그야말로 날강도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세계여론이 순수한 인도주의적문제마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미국을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세계면전에서 인도주의말살과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분렬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로 하여 산생된 인도주의적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고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선전과 북침핵전쟁연습 등 북남관계개선과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3(2014)년 7월 31일
평 양

8월중 지자기현상

8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4일(6—8시), 7일(9—11시), 10일(11—13시), 13일(20—22시), 19일(8—10시), 23일(10—12시), 30일(2—4시).

청진지방

4일(6—8시), 7일(1—3시), 10일(18—20시), 16일(5—7시), 20일(16—18시), 23일(10—12시), 29일(19—21시).

독자의 편지

온 세상에 전하고싶습니다

얼마전 뜻밖의 일로 저의 안해는 항구구역인민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즉시 병원적인 긴급협의회가 열리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환자의 병상태가 몹시 위급한 조건에서 빨리 수술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온 병원의 관심속에 수술은 5시간동안이나 진행되였습니다.

수술후에도 과의료일군들은 안해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느라 땀을 흘리였고 위험계선에 다달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런 그들을 곁에서 보는 저도 안해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떠서 저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외과과장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긴장하게 관찰하면서 치료대책들을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치료전투는 계속되였고 안해는 드디여 의식을 차리게 되였습니다.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두번다시 태여난 안해를 보면서 저의 가슴속에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차고넘쳤습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좋은 제도에서 사는 이 행복과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싶습니다.

항구구역 상대두동 리금상

영원한 패전자, 산송장들의 꼴불견스러운 넉두리행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7.27을 계기로 벌려놓고있는 해괴망측한 광대놀음의 진상을 평함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마다 위대한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유정한 보통강반에 세계으뜸의 대승리전당이 금별의 빛을 뿌리고 이르는 곳마다에 전화의 영웅들인 인민군렬사들의 영생의 기념비가 높이 솟아 빛나며 전승의 대주제가인 《7.27행진곡》의 장쾌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뜻깊게 맞고보내는 전승절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승리자들만이 경축할수 있는 영원한 특전이고 행운이다.

강대하고 존엄높은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이 격동적인 환희의 모습은 영원무궁한 승리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펼쳐보일수 있는 대경사이다.

바로 이러한 때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패전의 항복서를 섬겨바친자들이 으슥한 뒤골방에 모여들어 그 무슨 《승전기념식》놀음이라는것을 벌려놓아 못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세상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당시의 패전자들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 끌어들여 《초청행사》와 《청소년평화캠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평화음악회》, 《전사자추모비 헌화와 분향》과 같은 광대극들을 벌려놓는것으로 수치와 패망의 력사를 미화분식하고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이 마치 저들이 그 누구의 《남침을 격퇴》하고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것처럼 여론을 오도해댈 때 미국놈들은 《6.25전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의 력사교과서부터 《6.25전쟁을 기술한 분량》을 늘구어 조선침략전쟁을 《남침을 막은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외곡하여 다시 만드는 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력사는 공정하다.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력사는 언제나 진실만을 반영하는법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고있는 해괴망측한 광대놀음들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숨길수 없는 패전자, 산송장들의 가련한 정체만을 더욱 낱낱이 폭로해줄뿐이다.

1. 구슬픈 장송곡을 울린 《기념공연》

7.27이 오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례외없이 그 무슨 《기념공연》이라는것을 벌려놓군 한다.

이번에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평화음악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얼핏 보면 《평화》요 《기념》이요 하는 현란한 문구로 채색되여있지만 실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패배자의 장송곡연주회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에서 《유엔군참전국》 21개 나라에서 모여든 뜨내기풍각쟁이들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귀찮게 울어대는 귀뚜라미울음을 련상케 하는 련합교향악단《공연》이라는것을 펼쳐놓았던것과 일맥상통하였다.

관람객이라야 《유엔군참전국》에서 왔다는 늙다리대표들과 6.25참전자들 그리고 할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건달군들뿐이였다.

괴뢰들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까이에서 《기념공연》을 벌려놓은데는 나름대로의 리유가 있다.

미제의 사촉밑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먹어보려던 남조선괴뢰들의 침략흉계는 전쟁초기부터 여지없이 짓부셔지고 전쟁종결때에는 오히려 38° 선이남의 개성, 해주, 옹진, 배천, 연안일대를 우리에게 빼앗기고 쫓기우는 굴욕을 당하게 되였다.

결국 군사분계선은 초기 《북진》을 개시했던 개성 송악산계선에서 남쪽으로 밀리워 이곳 도라산가까이로 정해지게 된것이다.

원래 도라산이라는 지명에는 교훈적인 유래가 있다고 한다.

옛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인 고구려를 망하게 한 신라의 마지막왕이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로 강성하는 고려의 국력을 더는 이겨낼수 없어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귀순하러 오던 길에 바로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치미는 아쉬움과 굴욕감을 누르며 지나온 산천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고 하여 이 지대를 도라산이라고 불러왔다는것이다.

침략의 총포성을 울리며 38° 선을 넘어섰다가 나중에는 방대한 면적의 곡창지대를 내여주고 쫓겨나게 된 괴뢰들의 처지가 신통히도 도라산의 지명유래와 일치해서인지 이곳에서의 《공연》은 전쟁도발자들에게 들씌워진 치욕에 대한 구슬픈 참회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장송곡은 군사분계선 도라산에서도 울리고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도처에서 울려 남조선전역을 아예 하나의 장례터로 만들어놓았다.

조선전쟁에서 숱한 사상자를 낸 미국도 싫든좋든 장송곡을 울리지 않을수 없었던지 알링톤국립묘지주변에서 미제침략군의 《군악연주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공동묘지상공에 보이는것은 까마귀무리요, 들리는것은 송장파먹은 까욱소리뿐이니 이 음산한 곳에서 흥겨운 무도곡이나 경쾌한 행진곡이 연주되리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것이다.

실지 간판은 《군악연주회》라고 하였지만 울린것은 비애와 슬픔에 찬 쓸쓸한 곡조뿐이였다.

한 외국언론은 7.27을 계기로 벌어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이처절한 정상을 두고 《미국인들과 그 추종국들은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며 기염을 토하지만 실지 내적으로는 조선전쟁에 대해 몹시 기가 꺾여있다.》고 평하였다.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으나 상전과 주구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함께 당한 시체와 죽음, 치욕과 절망을 《평화음악회》라는 간판을 내대고 서로 《위로》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패전의 상실이 치유될리는 영원히 만무한것이다.

2. 《유엔군참전국》들에 섬겨바친 추모《제상》

북악산의 음침한 곳에 하나의 큰 묘지를 방불케 하듯 푸른 기와를 올려놓은 청와대는 때로는 묘를 돌봐주고 《제상》을 차리는 《산당집》으로서의 체모도 완벽하게 갖추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도그럴것이 치마두른 안방주인이 7.27을 계기로 《유엔군참전국》대표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곳곳에서 《제상》을 차려주는 등 《익숙된 솜씨》를 과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지난 조선전쟁참전자들을 위한 《제상》차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것도 《식전행사》, 《기본행사》, 《식후행사》로 정하여 제사날인지, 게걸든자들의 먹자판인지 가늠할수 없는 놀음들을 연방 벌려놓았다.

서울에서 《유엔군참전국》대표들을 위한 《추모오찬》과 《감사만찬》이라는 명분이 똑똑치 않은 《제상》을 차린것으로도 부족하였던지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괴뢰대사관들에서도 《위로 및 감사행사》를 진행하였다.

괴뢰보훈처는 《전쟁기념관》에서 《6.25참전감사행사》를 열어놓고 저들이 《보은외교》를 통하여 참전국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것을 세계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그러모으겠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그러면서 괴뢰군예비역장병들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에게 《감사패증정》과 《호국영웅장》수여를 통하여 《감사》를 표시해대고있다.

원래 모자라는 병신일수록 허물자랑에 여념이 없다고 괴뢰당국은 패전의 수치를 함께 당한 미국상전과 그 무슨 《상》제정놀음을 곧잘 벌려놓고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한 그 무슨 《상》이라는것을 새로 제정한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괴뢰들은 《상》에 백선엽의 이름을 붙이였다.

백선엽으로 말하면 왜놈군복을 입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항일선렬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8.15후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북침전쟁도발의 하수인으로 미쳐날뛴 2중매국노, 민족반역자이다.

《유신》독재자와 경력이 하도 신통하여 개보다 못한 이자의 이름이 추첨에서 당선됐는지도 모른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유신》독재자는 심복의 총에 맞아 일찌기 비명횡사당하였다는것이고 이자는 채머리를 떨면서도 개같은 명줄이 붙어있다는것이다.

괴뢰들의 《제상》차리기와 《상》제정놀음은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침략자들에게 천벌을 내리기는커녕 환대하고 표창하고 침략과 전쟁을 찬미하는 저주맞을 행위인것으로 하여 내외여론의 불소나기같은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오죽하였으면 한 국제단체가 《제반사실은 이 전쟁이 … 대량의 파괴전쟁이며 전투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부녀자들과 로인들을 살상하는 전쟁이라는것을 립증하고있다. 이 전쟁은 생명그자체를 반대해나서고있다.》면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였겠는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피값을 미국은 물론 그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전쟁터에 끌려나왔던 고용병들도 톡톡히 치르었다.

영국 글로스터시에 있는 한 성당의 중앙기둥에 30㎝길이의 켈틱십자가가 걸려있게 된 사연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십자가는 1951년 4월 영국 글로스터련대에 소속되여 남조선 파주에 전개하였다가 우리 인민군대의 질풍노도치는 진군앞에 620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는 속에 자기가 이끌던 대대전체가 비극적으로 괴멸되고 그자신은 18개월동안 포로생활을 한 영국군 장교가 직접 깎은것이다.

당시 영국륙군 장교였던 제임스 카네는 포로가 되였을 때 엄습하는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보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깎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무모한 침략전쟁의 대포밥이 되여 한생을 망치지 말라는 의도에서 그 십자가를 성당에 기증했다는것이다.

조선전쟁터에 뛰여든자들은 개죽음이나 종신불구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요행 목숨을 부지한자들도 음산한 악몽에 시달리며 바람앞에 꺼져가는 초불마냥 일생을 고달프게 보내였다.

바로 이런 판에 괴뢰들이 세계 각지에서 《제상》을 차려 위로놀음을 벌려놓고 새로운 《상》을 제정한다고 분주탕을 피워댄것은 오히려 패전의 쓰라린 상처를 들쑤셔놓고 끔찍한 악몽을 되살려놓았을뿐이다.

괴뢰들이 섬기는 《제상》앞에 마주앉은자들이 얼마나 기분잡쳤겠는지 또 아양떠는 삽살개주구가 달아주는 《상》을 마주한 상전의 구접살스러운 몰골이 어떠하였겠는지 구태여 설명해서 무엇하겠는가.

아마도 인천상륙작전때 맥아더의 참모로 절망과 치욕의 나락에서 삶과 죽음을 체험했던 에드워드 로우니와 같은 삼륜차신세의 숨쉬는 송장들에게 물어보면 대뜸 알수 있을것이다.

괴뢰들이 실제로 이따위 서푼짜리 《상》이나 조촐한 《제상》으로 저들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들을 규합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보다 더 기막힌 몽상은 없을것이다.

3. 과연 패전도 《기념》할수 있는가

패배의 한숨과 스산한 악몽만을 더해주며 진행되던 광대놀음의 최절정은 미국 워싱톤과 서울에서 상전과 주구가 동시에 벌려놓은 그 무슨 《7.27행사기념식》이였다.

이 《기념식》이야말로 패전자들과 산송장들의 넉두리행보의 극치였다.

괴뢰들은 가소롭게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정전기념일》행사에 대표단이라는것을 파견하였다.

이번에는 심사가 편치 않았던지 박근혜가 치마자락을 휘저으며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꼴이 참 가긍스러웠다.

《7.27행사기념식》이라는것이 서울 룡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앞의 《평화의 광장》에서 벌어질 때였다.

6.25참전자 및 《유엔군》참전자들과 그 손자, 손녀들, 기타 《국방방위에 특출한 기여》를 한자들이 시궁창의 쉬파리떼마냥 무리지어 모여든 이 《행사》에 직접 나타난 박근혜가 주창한 그 《기념사》라는것이 《추모사》인지, 《도발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한것은 자못 슬픈 표정에 울음섞인 애절한 어조로 지난 조선전쟁시기 죽어너부러진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던 박근혜가 돌변하여 살모사같은 독기를 내뿜으며 《북핵포기》와 《진정한 변화》촉구와 같은 도발적인 망발을 줴쳐댔던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무엇때문에 시체와 죽음이 차례졌는지,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좁은 속통으로는 도저히 리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었던 모양이였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조인기념식》을 열어놓은것도 결국은 항복서를 바친것을 스스로 《기념》하는 격이였다.

사실 온갖 비극적파멸로 일관된 지난 조선전쟁을 《기념》한다는것자체가 현실착란증에 걸린 정신병자마냥 동서남북도 제대로 판별할줄 모르는 무지한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실제로 이따위 《기념식》놀음에 참석한자들만 보아도 력대 《유엔군》사령관들과 예비역단체들을 비롯하여 조선전쟁참전과 련관된자들이였다. 조선전쟁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오명과 악명을 뒤집어쓰고 인류사의 갈피에 영원히 저주맞을 전범인으로 기록된것도 모르는 저능아들만이 이 자리에 몸뚱이를 내민것이다.

조선전쟁은 정의와 진리에 역행한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리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파괴망상적인 승전열기에 취한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시까지 쌓아올린 모든 《신화》들과 악명높은 살인장군들의 《명예》를 악취풍기는 진펄속에 통채로 처박아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맥아더의 《크리스마스총공세》도, 릿지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도, 클라크의 《초토화작전》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도 여지없이 풍지박산났으며 《전략폭격》, 《교살작전》, 《세균전》, 《원자탄위협》 등 온갖 살인수단과 수법들도 일체 통하지 않았다.

미제는 련속되는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조선전쟁기간 대통령감투를 트루맨에게서 아이젠하워에게 넘겨씌워주었고 《유엔군》사령관도 맥아더, 릿지웨이, 클라크로 련속 갈아댔으며 미8군사령관 역시 워커로부터 밀번, 릿지웨이, 밴플리트, 테일러 등 5번이나 교체해보았지만 수습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패망상만 《창조》되군 하였다.

미8군사령관 워커가 인민군적후부대의 지뢰에 걸려 개죽음을 당하였고 미제9군단장 무어가 비행기와 함께 한강에 처박혀 물고기밥이 되였고 미제24사단장 떤은 허줄한 사병차림으로 뺑소니치다가 《포로장군》의 오명을 들쓰게 되였고 미제1해병사단장 스미스는 부하의 태반을 황천객으로 만든 《무덤장군》으로 둬진것보다 못하게 되였고 미제21보병사단장 카이저는 졸병들을 내버리고 혼자 도망쳐 살아남은 《개새끼장군》으로 기록된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완전한 패배만을 거듭한 조선전쟁에 대해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기념식》이란것을 벌려놓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지능수치를 과연 어떻게 정해야 옳을것인가.

괴뢰들은 터무니없게도 《기념식》의 주제를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으로 정하였다.

그래 무엇을 함께 지켜왔고 무엇을 향해 나간다는것인가.

세상에 류례없는 패전자의 수치를 함께 지켜왔고 최후종말의 무덤속을 향해 함께 나가려 한다는것인가.

이 지구상 그 어디를 휘둘러보아도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면서 파멸과 죽음을 《기념》하는자들은 오직 미국과 남조선괴뢰들뿐일것이다.

4. 패전의 악몽만을 되살려준 《참배》놀음

지난 조선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자들을 매장한 《유엔군묘지》와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의 질풍노도치는 남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다가 떼죽음을 당한 지역들에 대한 이른바 《전적지참배》놀음은 《7.27기념행사》라는 광대놀음에서 빠져서는 안될 종목이다.

2 300명이나 되는 《유엔군》의 시신이 매장되여있는 부산의 《유엔군묘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음침한 하늘을 배경으로 촘촘히 서있는 십자가들앞에 쓰디쓴 비애의 싯누런 진물이 흘러내리는 상판을 푹 숙이고 서있는 스미스놈의 가련하고도 후줄근한 몰골이 찍혀져있는 사진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잘 알고있다.

이 묘지가 일약 유명해진 희비극적인 일화가 있다.

1952년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쟁상황을 료해하기 위해 남조선행각을 계획하고있을 때였다.

아이젠하워가 행각도중에 자기 조카가 묻혀있는 《유엔군묘지》를 돌아볼수 있다는 소식에 접한 괴뢰들은 분주하게 돌아쳤다.

이름모를 타향에서 제명도 살지 못하고 원통하게 숨을 거둔 울분과 분노가 내배여서인지 흙마저 거무틱틱하고 시뻘건 봉분들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널려있는데 무척 난감했던 괴뢰들이 그 해결책으로 모색해낸것이 정말 가관이였다.

호남벌에서 싹이 터나온 밀보리들을 통채로 떠다가 무덤들에 잔디대용으로 씌워놓자는것이였다.

물론 이 《묘안》이 그대로 실행되여 밀보리들은 《풍작》을 이루게 되였다.

이를 두고 당시 항간에서는 숱한 미국놈들이 이 땅의 곡식을 자래워주느라고 대양건너 조선땅에까지 게바라와 《두엄무지》가 되였다는 우스개소리가 크게 나돌았다.

이러한 곳에 찾아온 《유엔군참전국》대표들이 무엇에 대해 《참배》하고 《기도》를 하였는지 불을 보듯 뻔하다.

괴뢰들이 특별히 힘을 넣었다는 《전적지참배》놀음도 그러하다.

지난 기간 괴뢰들은 쩍하면 그 무슨 《안보관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숱한 관광객들과 지어 나어린 학생들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재현과 《천안》호참관놀음같은데 끌어내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전적지》들에 모집해놓고 군복을 입힌다, 총을 쥐여준다 하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대군 하였다.

이번 광대놀음에서도 이 못된 버릇은 그대로 재현되였다.

남강원도 화천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위치한 자그마한 고지에 대한 《전적지참배》놀음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마지막순간까지 악착스럽게 도전해나서다가 몽땅 죽어너부러진 425고지의 전경을 《칠성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며 패전의 실상을 감수하는 《참배》놀음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여기에 참가한 놈들이나 알 일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여러 나라의 늙다리들과 그 후손들을 께름하기 그지없는 《묘지》와 《함정골》과 같은 사지판들에 끌고다니며 《참배》를 시켰으니 60여년전의 악몽이 어찌 되살아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유엔군묘지》와 《전적지》들은 영원히 가실수 없는 패전의 산증거이며 침략자,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말없는 고발장이다.

결국 《유엔군묘지》와 《전적지》에 대한 《참배》놀음은 그가 누구든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그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겠는가를 새삼스럽게 상기시켜준 《현지참관》이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배》놀음은 패전의 악몽만을 되살려주는 고통스러운 참배였다고 평할수 있다.

다만 한마디 더 언급한다면 그때에는 비록 죽어 묻힐 땅이 있었지만 앞으로 통일성전의 그날에는 한쪼각의 뼈다귀도 추리지 못한다는것이다.

5. 사람대신 동상대돌우에 올라선 《레클리스》군마

해마다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려는 음모군들의 고민과 번뇌가 여간 아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실을 오도하는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립해병대박물관에서 진행된 그 무슨 동상증정의식이라는것을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세계《최강》의 신화가 조선의 이름없는 산야에 통채로 구겨박히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비참한 운명에 빠져 무릎꿇고 항복서까지 바친 조선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동상증정놀음을 벌려놓는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승국 사단장》으로 득의양양해 활개치던 81㎏의 체중을 가진 살인장군 떤이 36일간이나 집잃은 들개처럼 산속을 방황하다가 58㎏의 초췌한 몰골로 애어린 병사의 손에 포로가 되고 유럽의 전장과 필리핀, 일본을 돌아치던 미국의 《상승사단》떼무리들이 《민청》호중기의 불마당질에 삼대처럼 쓰러지고 제마음대로 지구의 곳곳을 마구 물어뜯던 미제침략군땅크가 녀병사가 내뿜는 증오의 눈길앞에서 뒤걸음치지 않았던가.

《미국력사상 가장 긴 192㎞의 줄행랑퇴각》을 당하고 1951년 단석달동안에 6만여명의 미제침략군 사상자를 초래케 한것이 다름아닌 조선전쟁이다.

딸라에 팔린 고용병들이여서 미제침략군놈들은 약자들앞에서는 그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했지만 강자들앞에서는 사시나무떨듯 목숨만 살려달라고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추태를 부리군 하였다.

그것은 미제침략군놈들이 하나같이 소지하였던 《항복서》와 《생명보증서》들과 배낭마다 보물처럼 건사하였던 오강을 비롯한 놋그릇들이 말해주고있다.

두엄무지는 뚜질수록 악취가 코를 찌르듯이 조선전쟁 3년간의 갈피갈피를 번져볼수록 미제침략군의 추악상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다.

그러니 조선전쟁참전자들가운데 과연 누구를 저 동상대돌우에 올려세울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였다.

패전이든 승전이든 그것을 판별하기에 앞서 정전협정체결일을 《기념》하는 의식을 보장하기 위해 동상제막을 맡은 사람들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었다.

아무리 눈을 까밝히고 살펴보아도 조선전쟁에서 살상포로된 40만 5 000여명은 물론 미제침략군참전자들가운데 패전을 부정하고 승전의 상징으로 내세울만 한 인물을 찾아낼수 없었던것이다.

인위적으로 어떤 놈이든 지명하자니 여론의 질타를 면치 못하겠지 그렇다고 하여 적임자를 찾아낼수도 없지 하여 속수무책하던중 기발한 착상이 튀여나왔다. 그것이 바로 전쟁과 인연이 있다고 볼수 있는 군마로 대신하자는것이였다. 그것도 《레클리스》 즉 용맹한 군마라는 해석까지 달아서 말이다.

미제침략군속에서 《승전》의 상징으로 내세울 위인이 얼마나 없었으면 난데없는 군마가 동상대돌우에 《당선》되였겠는가.

한갖 군마값에도 들지 못하는것이 다름아닌 미제침략군무리인것이다.

6. 야밤삼경에 《거행》된 미해병대의 《의장대시위행진》

지난해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성대하게 진행된 전승 60돐 경축행사에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해병대원으로 참가하였던 80고령의 퇴역군인들도 참가하였다.

그들은 평양방문기간 자기의 소감을 숨김없이 피력하였다.

그중에는 장진호반전투에서 전멸된 동료들을 뒤늦게나마 유골이라도 찾아 《상봉》해보았으면 하는 의향도 있었고 특히는 조선전쟁이 미국참전자들에게 시체와 죽음을 안겼고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는 우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장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나누고있다고 실토한것도 있다.

그들이 자기 인생의 총화마냥 숨김없는 진실을 터놓던 바로 그 시각에 미국회청사옆에서는 미해병대의 《의장대시위행진》이 《거행》되였다.

시위라는것은 말그대로 남에게 위력을 과시해보이기 위한것이다. 더우기 《장례의식》을 위한 《의장대시위》라면 만사람이 보는 앞에서 엄숙하게 진행하는것이 초보적인 상식일것이다.

그런데 《의장대시위행진》이라는것은 조선전쟁참전자들이 모여든 속에서 마치 어둠속을 은밀히 싸다니는 도적고양이들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야밤삼경에 벌어졌다.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무리들이 어둠을 제일 질색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대낮에는 기승을 부리며 평화적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도시와 마을들에 천문학적수자의 폭탄을 떨구어대다가도 해가 서산에 기울기 바쁘게 제 몸뚱이부터 감추던 천하겁쟁이무리가 바로 미제침략군이였다.

미해병대도 피비린 살륙과 만행을 일삼는데서는 《용맹》을 유감없이 떨쳐온 악명높은 살인귀무리였으나 조선전쟁에서만은 패전의 상징으로밖에 달리될수 없었다.

오산에서의 첫 접전때 우리 인민군용사의 서리발총창에 찔리워 순식간에 열일곱놈이나 떼죽음을 당한 특공대무리와 조선전쟁기간 미해병대가 창조한 《비겁쟁이신화》는 부지기수이다.

300여척의 최신군함과 약 1 0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포함한 5만대군을 가지고서도 단 4문의 포로 저항하는 0.66㎢의 월미도를 3일동안이나 탈환하지 못하고 숱한 병력과 군함들을 수장시킨것중에는 다름아닌 《백전로장》이라고 일컫던 맥아더휘하의 미해병대도 있었다.

조선전쟁의 한페지를 얼룩져놓은 미제침략군 탈주병기록만 보아도 미륙군에서 월평균 2만명, 때로는 하루 3 000명의 탈주병이 생길 때 미해군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전쟁개시이래 얼마 안되여 4만 6 000명의 탈주병을 《생산》해냈다.

아무리 위선과 기만에 이골이 난 자들이라고 해도 미제침략군해병대무리가 당한 비극적치욕을 백주에 감히 부정해나서기에는 담이 모자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엄엄한 식을 뽐내며 허세를 부리고 으시대기 잘하는 미해병대의 《의장대시위》를 이번에만은 한밤중에 남이 볼세라 조용히 《거행》한것이다.

하긴 부정의의 침략전쟁판에서 황천객이 된자들을 《추모》하는데야 남들이 보는 대낮보다 칠칠야밤이 더 적중하다는것은 분명한 리치이다.

야밤삼경에 진행된 미해병대의 《의장대시위행진》은 이 땅의 해와 달이 바뀌여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패전자, 산송장들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7. 산송장들에게 수여된 《파철메달》

미국 워싱톤의 《조선전쟁기념공원》은 광대극이 연출되는 하나의 고정무대로 등장한지 오래다.

천하역적 김영삼패당이 1억 8 000만US$의 돈까지 섬겨바쳐 1995년 7월 27일 제막한 《조선전쟁참전기념비》가 세워져있는 이 공원은 평소부터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 장소로 락인되여있다.

언제 봐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무덤속같이 피피한 정적만 흐르고 행방없는 돌개바람에 각종 오물들이 날려와 무져있는데다가 영문없이 바닥까지 군데군데 꺼져내리는탓에 항간의 조소거리만 된 곳이 바로 이 공원이닌 《공원》이다.

유독 이곳에 인적기가 있는 때가 있다면 조선정전협정체결일때마다 몇몇 놈팽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왜가리청을 울리는것이 전부였다.

내외의 이목을 끈적이 있었다면 2006년 미국부대통령이였던 체이니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였다.

지난해에도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미국방장관, 로병장관 등 미행정부와 정계, 군부고위급인물들이 대거 참가하였었다. 그것이 괴뢰들을 저들의 사슬에 더 단단히 얽어매놓으려는 상전의 치밀한 타산도 깔려있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작 숱한 놈들이 쓸어들고보니 실지에 있어서는 비애와 슬픔뿐이여서 《기념식》이 아닌 조문식이였다.

산이 제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밑의 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념식》을 요란하게 벌려놓아도 패전의 력사는 가리울수 없는 진실인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의미를 갱신해보려고 이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포고문》이라는데서 오바마는 참전자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집을 떠나 머나먼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다느니, 《참전용사들 희생》이니 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과 그 고용병들이 영문도 모르고 침략정책의 무모한 희생물로 되였다는것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보다 물의를 일으킨것은 《미국은 영원히 참전용사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한것처럼 그들을 위해 봉사할것을 다짐한다.》고 력설하여 미국인들을 《살아있는 주검》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6.25전쟁이 패전과 수치의 대명사로 되였다는것은 미국이 조선전쟁참전자들에게 수여하려고 만든 《로병메달》만 보아도 잘 알게 될것이다.

《로병메달》로 말하면 직경 7㎝인 6각형모양으로서 《조선전쟁참전용사추모》라는 문구와 성조기가 형상되여있는데다가 괴뢰들의 굴종과 아부를 반영하여 《감사와 존경》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머리가 허옇든, 허리가 굽었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추모》라는 글자가 있는 메달을 수여하는 해괴하기 이를데 없는 표창이였으니 결국 숨이 붙어있는 참전자들까지도 60여년전에 죽은 송장처럼 치부하는것이나 다름없었다.

보다 가관은 이 《로병메달》을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설치하였다가 폐기해버린 녹쓴 철조망들을 주어다가 녹여서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 세상에 위훈과 공로의 상징으로 메달이 출현한지도 력사가 오래지만 그 재질을 녹쓴 파철로 정하였다는 소리는 동서고금은 물론 아마 인류가 생겨 전무후무할것이다.

하긴 이 지구상에서 군인의 가장 큰 수치로 되는 포로 그자체도 미화분식하여 표창하는 《전쟁포로메달》이란것까지 이미 제정한 미국이고보면 이처럼 새로운 특허제작도 십분 가능한것이다.

《파철메달》, 이는 침략과 전쟁판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살아숨쉬는 전기간 패전의 수치와 침략전쟁의 대포밥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보다 못한 불우한 인생을 보내온 산송장들의 처지를 그대로 립증해보이는 표창아닌 《표창》이였다.

❊ ❊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대참패를 어떻게 하나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해괴망측한 광대놀음들을 벌려놓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보기 드문 력사외곡의 상습범, 모략과 날조의 악한으로서의 유전적기질을 타고난것 같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간의 기나긴 세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벌어진 군사적도발 몇가지 사실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1968년 1월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1969년 4월 《EC-121》대형간첩비행기가 영용한 조선인민군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되였을 때에도 혹백을 전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댔다.

상전의 날강도적수법을 그대로 본딴 남조선괴뢰들도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무력대고 《북소행》으로 단정하였으며 우리에게 감히 선불질을 했다가 보복의 불세례를 뒤집어쓴 연평도포격전을 두고도 마치 제놈들이 《혁혁한 전과》나 거둔듯이 뒤골방에서 《기념》이니 《자축》이니 하며 부산을 떨어댔다.

바로 이런자들이니 세상망신인줄도 모르고 광대놀음에 극성을 부리고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잡다한 놀음들을 통하여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미화분식하고 마치 저들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들이 많은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괜한짓에 불과하다.

7.27을 계기로 벌어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 그 추종국들의 망동은 만천하에 저들의 수치와 참패만을 다시금 재확인해주었을뿐이다.

추물의 추태라고 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그 무슨 《기념식》놀음들을 벌려놓고 해괴한 넉두리에 매달릴수록 만천하에 저들의 더러운 몰골만을 더 낱낱이 드러내보이게 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있는 한 승전의 력사, 백승의 바통은 영원히 우리의것이며 패전의 비참상은 침략자들의 변함없는 소유물로, 처절한 고통의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것이다.

군사론평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군부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다

대결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것은 멸망뿐이다

남조선의 괴뢰군부깡패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대결기운을 고취하기 위해 더러운 입을 제멋대로 놀리며 지랄발광하고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앞장에서 갈개는것이 바로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군부수장자리에 올라앉은지 얼마 안되는 이자는 연평도에 나타나 그 누구의 《호전성과 야만성》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악다구니질을 하던 끝에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역도는 텔레비죤화면에 자기의 늙다리산송장몰골을 드러낸 자리에서도 우리의 공명정대한 북남관계개선제안에 대해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니, 《화전량면전술》이니 하고 마구 헐뜯다 못해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괴뢰륙군미싸일사령부에 기여들어가서는 그 누구를 《표적타격》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라고 졸개들을 다그어댔다. 몇해전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노릇을 할 때 연평도에서 우리에게 선불질했다가 보복의 불소나기에 처참하게 얻어맞고 얼이 나간채 찍소리 한마디 못 쳤던 천하의 비겁쟁이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결악담으로 비루먹은 강아지값도 안되는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것은 실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한민구역도의 도발적언동을 스쳐보내기에는 그것이 북남관계에 끼치는 파국적인 후과가 너무도 엄청나다. 역도의 극단적인 대결망동은 북남사이의 긴장을 최악으로 격화시키고 전쟁의 불구름마저 몰아오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력대로 제 집안에서 란리가 터질 때마다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 동족대결에 누구보다 악을 쓰며 못되게 노는 괴뢰군부깡패들의 반역적정체는 북침전쟁연습에 내몰렸던 저들의 함선이 침몰해도 《북어뢰》때문이라고 사실을 오도하고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북무인기》라고 날조한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실로 비렬성과 도덕적저렬성에 있어서 괴뢰군부불한당들처럼 무지막지한 불법무법의 무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모략적인 선거개입사건과 《종북》소동으로 남조선사회를 파쑈의 암흑천지로 만들고 현 집권자를 당선시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한 괴뢰군부패당은 지난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때에도 그 누구의 핵시험, 장거리미싸일발사가능성 등 각종 모략설을 내돌리면서 《북풍》조작에 기를 쓰고 매달렸다. 심지어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자는 감히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는 천하무도한 망언으로 북남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몰아왔다. 한민구역도의 악담패설도 그 연장선에서 튀여나온것이다.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북침야망이 골수에 박힌 이런 극악한 호전광무리들이 제멋대로 날치는 한 북남관계의 그 어떤 진전도 긴장완화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질을 해대는 괴뢰군부깡패들때문에 북남관계가 갈수록 파국의 수렁속에 빠져들고 조선반도의 핵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는것이다.

민족반역과 동족대결을 체질화한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북남관계의 우환거리, 민족의 재앙거리로서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군통수권마저 섬겨바치고 비굴하게 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들따위는 사실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당장이라도 결심만 하면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으로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북침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면서도 민족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다싶이 한민구역도를 비롯한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니, 《화전량면전술》이니 하는 갖은 협담질로 모독하다 못해 나중에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극단적인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은 괴뢰군부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초보적인 리성마저 잃어버린 미치광이무리,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하고 민족안에 살려둘 한푼의 가치도 없는 반역도배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친개가 날치는 곳에서는 인민들이 한시도 발편잠을 잘수 없는 법이다. 인민들이야 죽든살든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 공모하여 북침전쟁도발에만 미쳐돌아가는 괴뢰군부깡패들이야말로 남조선사회에 끝없는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는 화근이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은 조선동해와 남해에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전단과 이지스구축함들을 끌어들여 또 한차례의 북침불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북남사이에 모처럼 움트던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고약한 망동을 부렸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무슨 《년례적》이니, 《해상구조훈련》이니 하면서 저들의 호전적몰골을 가리우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말끝마다 《민중의 안전과 보호》를 떠들던 군부가 어찌하여 《세월》호대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당시 단 한대의 구조장비도 동원하지 않았는가고 원성을 터치며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동족대결의 일선에 내몰린 괴뢰군사병들속에서 서로 총질하며 죽일내기를 한 사건과 괴뢰군고역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이로 하여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위기감에 사로잡힌 괴뢰군부패거리들은 여론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심산으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감히 삿대질을 하며 무모한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반공화국대결소동의 강화로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괴뢰군부패거리들의 흉악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절대로 무사할수 없다.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는 세치 혀바닥을 잘못 놀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괴뢰군부패당이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흘려듣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계속 도발적망동에 매달리다가는 진짜 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진저리나게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죽음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객기

요즘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여윈 개 겨섬뒤지듯 안달이 나서 돌아치고있다.

역도는 장관벙거지를 쓰자마자 최대열점수역의 연평도에 나타나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 응징》을 떠벌이며 객기를 부리였다. 이어 텔레비죤촬영기앞에 나서서 《북이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었다. 얼마전에는 괴뢰륙군미싸일사령부라는데 코를 들이밀고 《북의 전지역타격가능》이니, 《정밀표적공격》이니 뭐니 하며 주둥이를 놀려댔다.

이미 납작해진 자기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워보려고 분주히 돌아치며 혀바닥을 날름거리는 이자의 망동은 지켜볼수록 역스럽다.

개입에서 상아가 나오랴만 우리는 이미 한민구에게 주의도 환기시켰고 엄중히 경고도 하였다. 그런데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고 날뛰는 역도의 미련하고 반편같은 몰골은 내외의 조소와 분노만을 자아내고있다.

나이 60이 넘도록 외세의 삽살개로 잔명을 부지해오다나니 고작해서 한다는 짓거리가 할말, 못할 말조차도 분간 못하는것이니 그야말로 나이를 헛먹었고 철딱서니 없어도 너무 없다.

최근 한민구역도가 떠벌인 망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겨누고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이 난 대결미치광이의 전쟁폭언들이다. 그래도 명색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전쟁이 결코 아이들놀음이 아니라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으면 한민구따위는 뼈다귀도 추리지 못한다.

온 남조선땅이 불바다로 될 무서운 참화를 소꿉놀이때의 불장난정도로 생각하고있는 한민구의 저능아적인 사고수준에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이따위 얼간망둥이가 국방부 장관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있으니 남조선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한민구는 이미 연평도에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불소나기세례에 혼이 빠져 입 한번 못 벌린탓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자리에서 나떨어진 수치스러운 참패의 당사자이다. 그랬으면 응당 교훈을 찾고 말과 행동에서 심사숙고하는것이 옳을것이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야 어디 갈데 있겠는가.

역도가 《국회》인사청문회장에서 시궁창의 썩은 물처럼 부글부글 피여오르는 자기에 대한 거부감에 놀란 나머지 없는 용기를 내여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휜소리치고 지금은 그것을 보아달라는듯이 물본 미친개처럼 날뛰는데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못된짓만 하면 스스로 망한다고 하였는데 한민구가 놀아대는 꼴이 신통히 거기에 들어맞는 말이다. 역도는 지금 제스스로가 죽음을 불러오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있는데 바로 한민구와 같은 괴뢰군부깡패들의 비극이 있다.

우리는 전술 및 전략핵탄두로케트까지 최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고있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 강자의 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의 타협이나 용서도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것이라는것을 이미 천명한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당장이라도 적의 아성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복수의 한을 풀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그때에 가서 쏟아져내리는 불소나기를 한민구가 하내비처럼 믿고있는 미국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응징》이니, 《체제의 생존》이니 하며 너덜대는가.

상전이 쥐여준 고철덩이를 부여잡고 《응징》나발을 불어대는것이야말로 가소로운짓이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전쟁광증에 사로잡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구 헤덤비는 한민구역적을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

한민구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앙된 분노와 복수심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철없는 아이처럼 세치 혀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다가는 끝내 무리상사를 빚어낸다는것을 알고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최 철 순

평화에 역행하는 대결정책을 폭로단죄

최근 남조선 각계가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에 열렬히 호응해나서고있다.

지난 7월 10일 남조선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화국정부성명에 천명된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을 지지하면서 북남공동응원단구성을 요구해나섰다.

어느 한 단체는 현 집권자와 인천시장에게 공동응원단구성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북의 선수단, 응원단파견결정은 온 민중의 관심사가 되고있으며 인천시민들은 특히 지난 2005년 북의 응원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며 뜨거운 동포애로 눈물흘렸던 기억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공동응원계획은 없다고 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인천시민들과 민중의 념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단체는 이미 자기들이 공동응원단모집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등 여러 단체들과의 련대밑에 7월중으로 공동응원단을 조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제의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당국이 대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한겨레》는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계기로 될수 있는 북의 제의를 《비합리적주장》으로 모독한것은 대화를 운운하던 종전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처신을 바로할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 신문은 북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는 없다고 하면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제안이나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것이 옳바른 처사이며 당국이 북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남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BS》방송은 북이 인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미녀응원단》을 기다리는 남조선민심을 상세히 전하였다.

《국민일보》도 당국이 북남관계개선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규모에 대해 경계하는것은 공연하고 편협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강렬한 지향은 그에 배치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지난 7월 16일 남조선로총과 진보련대, 민주로총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남조선미국련합해상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북을 자극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계속 격화될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훈련의 침략적성격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성명은 항공모함이 참가한 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군사행동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군사연습의 중지와 평화체제구축,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도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대화분위기조성의 여지조차 말살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그늘을 던지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도발자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화를 면하려거든 입부리를 조심하라

병신입에서 고운 소리 안나온다고 하였다.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체제의 생존》이니 뭐니 하는 극악무도한 폭언으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참을수 없이 모독한것을 보면 이놈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천치, 버벌치중의 상버벌치이다. 언제 뒈질지 모를 송장같은 이 늙다리가 우리 천만군민이 깨끗한 충정과 신념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신성한 체제를 감히 어째보려고 또다시 잡소리를 줴쳐댔다니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한민구같은자를 두고 늙어도 더럽게 늙었다고 한다.

시뻘건 뭉치코와 툭 불거진 개구리눈알에 주름투성이낯짝을 한 주제에 창피스러운것도 모르고 사람들앞에 나서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마구 줴친것을 보면 한민구놈이 망녕이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이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코흘리개시절부터 못된짓만 골라했다니 그 나이 다 처먹도록 악습을 버리지 못할수밖에 있는가.

아마 그 버릇은 죽을 때까지도 고치지 못할것이다. 지난 연평도포격전때 우리가 들씌우는 불세례에 얼이 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던 비겁쟁이가 그 주제에 《응징》이니 뭐니 하며 객기를 부린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자를 믿고 괴뢰군의 수장자리까지 안겨준 청와대안방주인은 또 얼마나 가련한가.

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상전이 넘겨주겠다는 군통수권마저 받을수 없다고 나자빠지는 괴뢰군부의 허재비들은 애당초 우리 군대의 상대로도 되지 않는다. 미국본토를 타격할 위력한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로케트까지 보유하고있는 우리 군대는 괴뢰군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짓뭉개버릴수 있다.

한민구는 물덤벙술덤벙 하며 입부리를 잘못 놀린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지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안 성 진

미친개는 몽둥이로 조겨대야 한다

달보고 개짖기라는 말이 있는데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볼품 사나운 짓거리가 꼭 그 격이다. 원래 담없는 비겁쟁이일수록 무슨 큰일이라도 칠듯이 호기를 부리는 법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응징》한단 말인가. 연평도사건때 우리 군대의 드센 불마당질에 너무 혼쭐이 나 제 소굴에 들어박혀 《확전방지》에 급급하던 얼간망둥이, 기력이 다 빠져 무덤속에 처박힐 날이 멀지 않은 늙다리가 감히 백두산혁명강군에 맞서보겠다고 들까불고있으니 과시 바보는 바보로구나 하는 생각만 든다. 한민구놈은 확실히 나이를 헛먹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당장 제 발등에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야말로 스스로 죽음의 화를 부르는 어리석은 추물이 아닐수 없다.

골통에는 온통 동족대결야망만이 꽉 들어차있고 하는짓이란 외세에게는 삽살개마냥 꼬리를 젓고 동족에게는 미친개처럼 짖어대는것뿐인 한민구역적은 민족의 망신거리이며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인간쓰레기이다.

미친개 한마리가 온 동네를 소란하게 한다고 북남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괴뢰군부악당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편안할 날이 없다.

우리 기관안의 일군들과 전체 녀맹원들은 북침의 칼을 빼들고 감히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어째보려고 푼수없이 날치는 한민구를 비롯한 괴뢰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데 자신들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겠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한 명 희

모가지없는 귀신이 되고싶은가

아이적 머저리는 크면서 알리고 미시리는 짬짬이 알린다는 말이 있다. 다름아닌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이 비루먹은 미친개같은 놈이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그 무슨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느니, 그 누구의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느니 하고 짖어댄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 수작에는 돌부처도 웃다가 배꼽이 떨어졌을것이다. 명색이 괴뢰군부의 우두머리라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행동이 시작되면 남조선전역이 완전초토화되는것은 순간이다.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초보적인 군사상식도 모르는 주제에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랍시고 휜소리를 탕탕 줴쳐대고있는 한민구야말로 무지몽매한 저능아, 천치바보가 분명하다.

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는 이런 얼간이를 군부수장자리에까지 올려앉힌 청와대안방주인이나 그를 섬기고있는 괴뢰군부깡패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늙다리몸뚱이에 해병대군복까지 걸치고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마구 놀려대며 화를 부르는 한민구는 남조선의 재앙거리일뿐이다.

아이가 떠들면 매를 맞고 개가 너덜거리면 범이 물어간다고 한민구가 지금과 같이 구멍뚫린 문풍지처럼 입술을 나풀거리며 푼수없이 놀아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모가지없는 귀신이 될수 있다.

그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입다물고 골방에 처박혀있는것이 좋을것이다.

보건성 책임부원 김 영 남

미국과 괴뢰패당은 무모한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공감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대화의 새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 성명은 첨예하고 복잡한 현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성의있는 조치들을 천명하면서 당면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8월 중순부터 계획하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반통일대결세력의 악랄한 파탄책동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 준비사업을 차곡차곡 해나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면서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배격을 받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의 경고와 내외여론을 무릅쓰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이번 연습에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의 미군과 괴뢰군병력 및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게 된다느니, 《정부》기관들과 중요대상의 민간인은 48만여명이 참가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벌써부터 화약내가 짙게 풍기는 전쟁연습광고에 미쳐날뛰고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연습에서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맞춤형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는것을 실전에 공식 적용한다는것을 내놓고 선포하고있다.

미국과 괴뢰군부불한당들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북침핵전쟁연습강행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더우기 미국전쟁우두머리들과 괴뢰호전깡패들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랭전시기 강대국사이 핵대결이 첨예하였을 때에도 이처럼 대방에 대해 로골적으로 핵전쟁선전포고를 한적은 없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위험성정도가 아니라 초미의 심각한 현실적문제로 되였으며 미국핵전쟁장비들이 집중되고 북침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알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괴뢰호전광들이 우리 군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비롯한 정상적이며 정정당당한 군사활동을 《도발》이니, 《응징》이니 뭐니 하고 철딱서니없이 망발질을 해대고 미친개 핥아놓은 죽사발같은 늙다리 멍청이로 조소받고있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가소롭게도 그 누구의 《체제생존》이니 뭐니 하며 개나발질을 하는것은 다 우리를 모독하고 자극하여 어떻게 하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남조선과 주변해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제 나라, 제 땅에서 하는 우리의 군사훈련을 시비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날강도들만이 할수 있는 뻔뻔스러운 궤변이며 가소로운 망동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며 핵전쟁을 폭발시키는 위험천만한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책동의 위험성과 그것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최극단에로 치달아올라 모든것이 끝장나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 및 전술로케트를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초정밀화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북침전쟁연습의 년례화, 정례화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군사훈련의 년례화, 정례화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철과 철, 불과 불이 맞부딪치게 되면 그 불꽃이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제침략군의 모든 기지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포탄 한발 떨어진적이 없다는 미국본토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평화애호노력과 인내심에 대하여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한점의 불꽃이라도 우리에게 튕기게 된다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호전깡패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31일
평 양

꾸바에서 몬까다병영습격 61돐 기념

꾸바의 아르떼미싸에서 지난 7월 26일 몬까다병영습격 61돐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라울 까스뜨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8 000명의 각계층 군중과 함께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연설한 꾸바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은 몬까다병영습격은 꾸바인민들을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규탄하여 시위

▲ 미국의 휴스톤시에서 지난 7월 25일 반이스라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약 2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은 학살만행을 중지하라》, 《강점을 끝장내고 팔레스티나에 자유를》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반이스라엘구호를 웨치면서 가자지대에서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군의 대량살륙만행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 이란의 수도에서 지난 7월 19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살인만행을 비호두둔하는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단죄하였다. 한편 이란의 각지에서도 7월 25일 국제적인 꾸드스의 날을 맞으며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침공과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정부와 군부의 고위관리들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반미,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스라엘당국자들을 법정에 끌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팔레스티나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호에서 지난 7월 24일 이스라엘의 군사적탄압만행에 항의하는 대규모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1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하고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살륙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시위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1명을 살해하고 20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에서 지난 7월 19일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반대하는 시위가 또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기발을 불태우고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있는 이스라엘당국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규탄하는 이란인민들

ㄱ-41119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